

사설

변화된 체제로 새로운 표준 만들 때

지난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의 일이다. 교육부도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해 대부분의 방역수칙을 폐지하고 수업과 학생자치활동의 대면 확대를 촉구했다. 대학가는 그동안 굳게 닫힌 빗장을 열고 학생들을 맞았다. 우리 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교는 폐쇄됐던 교내 시설을 개방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취식 제한을 해제했다. 하계 계절학기를 시작으로 대면 수업도 재개된다. 코로나19로 단절된 학생 문화도 점차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선승관에서 열린 대학농구 홈경기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유관중 경기로 진행돼 많은 학생이 열띤 응원을 보냈다. 동아리들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고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오는 24일부터 3년 만에

대면 축제를 개최한다. 다가온 팬데믹의 끝에서 학교와 학생들은 정상화로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전대미문의 팬데믹’이라는 수식어처럼 코로나19는 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위기의 연속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갑작스럽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원과 학생들은 처음 진행하는 온라인 수업방식에 혼란을 겪었다. 준비된 단계에서 시행된 전면 비대면 강의가 아니다 보니 이를 지원할 인프라와 체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대학 본부의 경우 오랜 등록금 동결로 수업이 제한된 상황이다 유학생마저 급감하면서 재정 악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수업 인프라 구축과 방역 인력 확충 등으로 예산 수요는 증가하면서 학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교는 발전기금 모금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찾았고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재정적 타격을 줄였다. 이캠퍼스도 확충되고 비대면 강의 체계가 자리를 잡으면서 교육 수준도 높아졌다. 수업방식도 성급한 대면 전환이 아닌 비대면 기조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동국대와 부산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학기 중 대면 전환으로 학생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학교의 신중한 코로나19 대응 방침과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다. 이 같은 노력이 다가올 ‘정상화’의 기틀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노력이 정상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기존 제도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19로 전환된 체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표준을 세울 때이다. 한균태 총장은 작년 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고민하며 미래에 적합한 교육시스템과 제도를 설계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로 이제는 ‘노멀’이 된 비대면 수업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 단절된 학내 문화를 재건해야 할 학생대표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이 단순히 재건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기존 문화를 계승하는 것만이 아닌 이를 정비하고 개선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은 흔히 ‘백년대계’로 불린다. 교육정책은 백 년을 내다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중한 정책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이겨냈던 것처럼, 다가올 뉴노멀에도 신중함으로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어나가길 바란다.

세시봉

갈등관리법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는 ‘오체투지’ 시위를 벌여 권리 신장을 주장한다. 전장연 시위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나뉜다. 시위는 정당하나, 시위 방식이 지하철 운영을 지연시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조급함, 혹은 그 이상의 불편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전장연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지만,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를 멈출 수 없는 상황이다. 곳곳에 보수와 진보, 남성과 여성 등의 갈등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며 그들 간의 갈등은 국가 전체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관리되지 못한 사회갈등’이 개인을 넘어, 우리 사회의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사회갈등이 관리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시스템 내 갈등관리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에 갈등 당사자들은 청와대와 국회로 나가 정치권에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그것이 실패하면, 지하철과 거리로 뛰쳐나가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갈등관리 장치의 부재, 즉 그들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행정은 전장연이 지하철 방해 시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서유럽 국가들도 우리나라만큼 사회적 대화와 갈등관리 경험이 부족했지만 협력적 리더십으로 사회협약을 성공시켜 강소국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특히 극심한 노사갈등과 경기 침체를 겪던 네덜란드는 총리 주도로 ‘바세나르 협약’을 맺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다. 이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재정안정 및 고성장을 이끌었다. 이처럼 관리되지 않은 갈등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관리된 갈등’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행정체제 안에 갈등관리 장치를 구축해야 하며 통합을 지향하는 협력적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갈등 공화국’인 현재 대한민국은 분열과 발전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그리고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갈등의 예방과 해소, 사회통합을 외쳤다. 협력적 리더십을 기대케 한 그의 일성이 갈등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전환시키길 진심으로 바란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동아리 문화 정착을 위한 모두의 노력

되찾은 봄날



황보종덕 기자
whd9223@khu.ac.kr

매년 봄이 오면 동아리 모집 부스가 캠퍼스를 넓게 드리웠다. 어렴풋이 품고 있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헤치는 교류의 장. 과연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공유하게 될지 상상하는 일은 늘 나를 붕 뜨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동아리를 ‘대학 생활의 꽃’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우리는 긴 시간 멈춰 있었다. 급작스레 찾아온 팬데믹은 우리의 낭만과 추억을 앗아갔다. 동아리는 존재 위기까지 처했었다. 전례 없는 사태에 동아리들은 활동 자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거리두기 지침이 완전히 해제되면서 동아리 활동이 점차 활력을 되찾고 있다. 닫혀있던 학생회관도 문을 열었다. 사적 모임 제한이 사라지면서 친

목 활동은 물론 공연, 전시, 체육 활동도 모두 가능해졌다.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게 됐다. 캠퍼스에 교류의 장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 한편 이 기대만큼 우리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이전의 동아리 문화를 어떻게 재정착시킬 것이냐는 문제다.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나느 지금, 그동안 대면 공백은 동아리 자치 회복의 걸림돌이 될 지점이다. 이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모두가 낮은 대면 환경에 적응하려면 활발한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활동 부재는 인수인계뿐만 아니라 존속 자체에도 어려움을 남겼다. 학생대표는 각자의 영역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동아리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복원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의 참여도 필요하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다시 찾은 우리의 봄날, 우리는 얼굴을 마주보고 힘을 모아야 한다.



만평 앞으로의 과제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김경민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